

완치 없는 도박중독 ...치유부터 재발 방지까지 ‘끝까지 간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가다

12회 걸쳐 개별·집단상담 후 종결평가
3개월 단위로 추후관리하며 재발 방지
“올바른 방법으로 도박 빛 상황” 각인도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을 위한 연중 캠페인 SAC(Stop&Clean)



▶▶▶ 불법 스포츠도박 및 부정경기
SAC(쌩크!) ‘썩’ 추방합니다
▶▶▶ 건전한 스포츠·레저문화의
‘썩’을 퇴출시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1899-1119
(www.cleansports.or.kr)
한국야구위원회 공정센터 02-3460-4699
(www.koreabaseball.com)
대한축구협회 신문고 singo@kfa.or.kr(www.kfa.or.kr)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린센터 02-2002-0691
(www.kleague.com)
한국농구연맹 클린바스켓센터 02-543-2288
(www.kbl.or.kr)
한국여자농구연맹 핫라인 080-077-0909
(www.wkbl.or.kr)
한국배구연맹 클린센터 02-6393-5408
(www.kovo.co.kr)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서울 영등포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를 찾았을 때 3개의 상담실은 문이 닫혀 있었다. 상담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였다. 상담은 바쁘게. 외부인은 볼 수 없다. 센터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우연히 빈 상담실을 봤다. 크지 않은 공간. 테이블과 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병원의 진료실을 연상시켰다. 도박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센터를 찾는다. 도박관련 문제점을 숨기고 숨기다 해결하기에는 때가 늦은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연락해오는 사람이 많다. 더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손에 끌려온다.

●감기도 증상이 각각 다르듯 도박중독도 증상은 다르다

도박중독의 상담과정은 이렇다. 센터를 찾는 내담자들은 우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서비스이용의 정거점이다. 이후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심리검사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박동기 ▲도박욕구 ▲도박상황 ▲변화동기 ▲우울 ▲도박인지 ▲단도박자기효능감 ▲음주행동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런 상담과정을 통해 치유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계획을 세운다. 이후 내담자는 상담사와 정해진 시간에 만나 면담을 계속한다. 상담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람마다 다

르다.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상담에 이어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집단상담도 받는다.

기초과정이 끝나면 심화과정이 기다린다. 여기에서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도박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를 배운다. 이들이 상담센터에 오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도박은 안 할 수 있다. 빚 때문에 도박을 한다.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도박에 빠진 자신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른다는 방증이다. 상담센터는 오랜 면담을 통해 모든 원인은 결국 자기에게 귀결되고 해결책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12회의 정규상담이 끝났어도 어느 한 순간 재발이 가능한 것이 도박중독이다

박애란 센터장은 “도박중독도 당뇨나 고혈압과 같다. 관리는 가능해도 결코 완치는 없는 만성질환”이라고 강조했다. 12회 정규상담이 끝나면 종결의 평가자가 기다리고 있다. ▲회복평가 ▲치료경험 ▲치료효과를 비롯해 처음 면담 때 했던 심리검사를 다시 한다.

12월에 걸쳐 이뤄지는 정규면담을 통해 도박에 다시 빠지는 확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없다. 상담사들이 3,6,12개월 단위로 내담자들에게 연락을 하며 추후관리를 하는 이유다.



도박중독 치유의 최전선에서 도박중독과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 박애란 센터장(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 등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도박은 완치가 없는 만성질환”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독질환은 진행성이라는 특징이 있는 병이다. 더구나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또 다시 도박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이 잦다”고 박 센터장은 설명했다.

가족들도 면담에 동참한다. 많은 중독자들은 가족이 자신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는 것을 줄여주겠다며 센터를 찾는 중독자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을 얹어매는 빚 해결을 가장 먼저 요구한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치료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점

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센터의 재정 서비스에서는 ▲도박 빚의 이해 ▲채권추심 대응 ▲재정문제 대처사례 이해 ▲자신에게 맞는 부채해결의 방법 ▲개인별 상한계 획 수립 등을 도와준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갈수록 도박 연령대 낮아져...특히 청년 도박중독 급증”

박애란 서울남부센터장

“갈수록 도박 중독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요즘 대학생 등 청년 도박중독이 늘고 있다.”

도박중독 치유의 최전선에서 ‘도박중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 박애란(사진) 센터장은 젊은이들의 도박중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박중독 사례를 봤을 텐데.
“예전에는 40~60대가 경마나 카지노 등 오픈라인에서 도박을 했다면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 도

박을 더 쉽게 접하고 깊게 빠진다. 초등학교까지 중독자가 내려가고 있다. 게임을 하다가 귀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도박이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이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문을 닫고 있다. 문제점을 알리고 싶는데 학교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걱정해서인지 문을 닫아버린다. 학교에서 문을 열어줘야 가서 교육을 하고 철저한 예방을 통해 중독 가능성을 훨씬 낮출 수 있다.”

-센터를 거쳐 간 여러 상담 가운데 가

장 기억나는 사례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도박중독으로 2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경우였다. 남편은 고지식해서 사실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머니가 혼자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아들을 위해 대리변제는 안 된다’는 상담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유치장에 못 보낸 다며 몇 번 대리변제까지 해줬다. 결국 같은 경험을 한 다른 가족들로부터 ‘그래봐야 아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자칫하면 죽게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마음을 고쳤다. 어머니의 극진한 아들사랑이 도박문제를 더욱 힘들게 만든



그 상황이 안타까웠다.”

-도박에 빠진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청년들의 도박 중독이 늘고 있다. 대학 1~2학년에서 군에 다녀온 대학 3~4학년까지 쉽게 도박에 빠진다. 이유가 있다. 학자금 상황 걱정, 취업걱정, 대인관계 문제, 놀이문화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들로 도박에 빠지는데 도박을 통해서 어쩌다 한번은 돈을 딸 수 있고, 대박경험도 할 수 있지만 결국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우리사회 불평등한 기회의 구조가 청년들을 도박으로 유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고민하는 청년들은 도박을 통해 돈을 딸 수 있지만, 경제활동으로 이어갈 수는 없고, 도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줬으면 한다. 도박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나는 절대 중독이 되지 않아~’, ‘중독은 나랑은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용기를 내어 센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김종건 기자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KPSA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동아 동아일보사 dongA.com CHANNEL 후원 : KBO KFA K LEAGUE KOVO KBL WKBL NPGA 한국프로골프협회 KLP6A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네이버 검색 창에

NAVER
종로할머니칼국수

검색
을 검색하세요!

“유행을 타지 않는 꾸준한 매출”
28년 전통 종로 3가 그 맛집!
종로할머니칼국수에서 ‘성공’을 맛보세요!!

칼국수 5대 천왕 “종로 할머니 칼국수”

“방송에서도 인정한 몸에 좋은 웰빙 칼국수”

1,000인분
무상지원

창업자금
대출가능

업종변경
大 환영

성공창업 설명회
[일시] 7월 5일 (화) 오후 2시
[장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26-3 모스트컴퍼니빌딩 302호

창업문의
02)569-9900

카카오특상담
jongnoinc